

“헌법 위에 4대강 사업?... 말도 안돼!”



영담 스님, '공직 사퇴' 속 출근 4대강사업 지지 호소문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이 7월 14일 오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입구에서 '공직 사퇴' '4대강 폭도 따는 00 스님 사퇴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불교단체 활동가들 앞을 지나 출근하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등 영담·성타 스님 참회 촉구 이명박 대통령에게 평등위원 해촉 공문 발송

“헌법기관 유린하고 종교 의견에 반한 영담·성타 스님은 불교와 사부대중에게 참회하고 종단의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라.”

조계종 5000여 스님의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생명평화선언에 앞서 4대강사업지지 발언을 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는 7월 12일 서울 조계사에서 ‘영담·성타 스님은 종단공직에서 사퇴하고 불교와 대중 앞에 참회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 집행위원 법승 스님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은 대운하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자 이명박 정부가 급조한 미증유의 국토파괴 토목사업”이라며 “거시적으로 불교 문화 소멸에 직간접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불교환경연대는 “4대강 사업은 조계종 중앙종회와 환경위원회가 종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고, 종도의 절반 가까이가 서명으로 반대했다. 또, 문수 스님이 소신공양하고 수경 스님이 승적과 소임을 포기하

면서까지 반대했다”면서 “종단을 대표·대변하는 지도급 중진인 영담·성타 스님의 (4대강 사업지지) 행동은 수행자로서의 자세 및 철학을 의심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환경연대는 “두 스님의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으로 △부처님 가르치신 연기론·생명관이 부정되고 △조계종과 승가의 위상이 실추됐으며 △조계종도간 화합이 저해되고 △불교환경운동 업적 등이 훼손됐다”며 영담·성타 스님의 공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영담·성타 스님이 위원으로 위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장 이명박 대통령)는 헌법 제92조에 의한 남북한 종교 교류·인도적 대북지원 등 통일에 관한 자문기구이다.

불교환경연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호소문 6개항 중 5개항이 4대강 사업을 찬성한다는 내용”이라며 “헌법기관의 권위를 이용한 4대강 사업 찬성이 용인할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4대강을 위해서는 헌법도 초월할 수 있다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법승 스님은 “영담·성타 스님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명의로 발표한 호소문은 헌법에서 부여한 권한

밖의 행위로 헌법기관 행위”라고 질타했다.

법승 스님은 “오늘 성명서는 자비 문중의 미덕을 살려 영담·성타 스님이 스스로 참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문수 스님의 49재(25일)까지도 두 스님이 참회하지 않으면 종단을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불교환경연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두 스님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인도지원원 위촉을 해제할 것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불교환경연대는 1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영담·성타 스님을 해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의장 진

오, 이하 대중결사는 13일 ‘문수 스님의 고귀한 뜻을 지키려는 전 종도들의 뜻을 해친 영담·성타 스님은 종단의 주요한 소임에서 즉각 사퇴하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중결사는 성명서에서 “조계종의 공적 소임을 맡은 스님에게는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보다는 종단의 공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이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조계종 총무부장 영담 스님과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성타 스님이 개인 자격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힌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글=조동섭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영담 스님 “반종단 주장은 억측”

영담 스님은 “추도위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면 정중히 사과하겠으나, 사실을 왜곡해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질책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7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문수스님소신공양추모위원회 회의에서 ‘4대강 생명살림불교연대의 성명에 대한 입장’ 제하의 성명을 배포하며 이같이 말했다.

영담 스님은 성명서를 통해 “스민

중평통 종교인도지원원 위원장과 조계종 총무부장 직의 무관한 △총무부장이 정부의 입장을 발표해 반종단적·반불교적 행위를 했다는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의 주장은 억측이다”라고 주장했다.

같은날 오전부터 불교단체 관계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총무부장 영담 스님의 공직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종단 수익사업 본격화

재향군인회와 상조사업 MOU 체결

조계종이 승려노후복지와 승가 교육 개선 등 정책 사업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종단수익사업을 벌이고, 이에 대한 동참을 촉구하는 지역별 설명회를 준비 중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7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정책특보실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스님은 “올해 안에 재무부서 수익사업 계획·시행 준비가 마무리 되면 내년부터 포교·재무 부장과 함께 전국을 돌며 수익사업 동참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포교부장스님의 전국 순회 동행은 조계종 신도를 대상으로 신도중 가업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재무부가 준비 중인 수익사업은 (주)향군가족과의 상조서비스 업무 제휴이다.



7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 재무부장 자승 스님(왼쪽)과 (주)향군가족 한재용 대표가 MOU를 체결했다.

자승 스님은 정책특보실의 확대 운영 방침도 내비쳤다.

스님은 “15대 종회가 꾸려지면 수익사업 등 몇 개 분야에 특보를 더 임명할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조계종 재무부(재무부장

자승)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상조회(주)향군가족(대표 한재용)과 상조업무 협약식을 열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조동섭 기자

불교시민사회 이슈에 공동대응

불교단체들, 네트워크 형성키로

법불교 단체가 연합한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가 결성돼, 종단 안팎의 이슈에 대해 불교계 역할을 보다 효율적으로 결집시키게 될 전망이다.

청와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전 대표·前 조계종 교육원장), 도반 스님(인도프라임생명공동체 대표), 퇴후 스님(실천불교전국승가회 대표),

원택 스님(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지홍 스님(불광사 회주), 법타 스님(동국대 정각원장), 지현 스님(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김동건 참여불교재가연대 대표, 성태웅 건국대 교수, 정승기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 등 법불교 단체 관계자들은 7월 1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정승기 재가연대 사무총장은 “불교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회적 이슈에 공동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네트워크가 연합기구 등 어떤 형태가 될지는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 법불교 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4대강 지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영담 스님 건에 대해서는 문수 스님 추모제 이후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했다.

조동섭 기자

“東大 기본교육기관 제외 철회하라”

석림동문회 졸업생, 교육원안 비판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이 동국대를 승려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제하라는 움직임에 동국대 출신 스님들이 석림동문회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동국대 석림동문회 제24기 졸업

생 일동(회장 현응)은 7월 15일 성명서를 내고 “동국대를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은 기본교육기관 개편의 뚜렷한 목적의식의 부재와 현실인식의 부족에서 나온 근시안적인 대안”이라며 “동국대를

승려 기본교육기관에서 배제하겠다는 논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육원은 5월 4일 열린 ‘승가 기본교육기관 및 전문교육기관 조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동국대를 기본교육기관에서 제외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행복의 씨앗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마음의 다름과 삶의 지루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불교는 일상의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합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본 대학은 불교를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조계사 앞 동산불교대학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교수진을 모시고, 최초의 2년제 불교대학으로서 많은 불교지도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불교대학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오늘 동산불교대학을 만나십시오!

2010년도 후기 동산불교대학·대학원·의식교육원 신입생모집 안내

불교와 관련한 근부사상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실행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교계 각 분야별 권위있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불교인재를 양성코자 아래와 같이 학생을 모집합니다.



www.dongsanbud.net

불교학과

1. 교과목 및 교수

교과목	교수
1년 근부불교, 반야사상, 유식사상, 불교상담론, 인도불교사,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 법화사상	무진장대종사(본대학학장), 최봉수교수(대원대), 김형준교수(동산대) 모주스님(동국대), 정병조교수(동국대), 차차석교수(동방대학원대학) 김상현 교수(동국대), 박종교수(동산대), 권경희교수(서울대학원대학)
2년 대승불교, 화엄사상, 정토사상, 밀교사상, 불교사회복지론, 불교학개론, 불교미술, 선학의 이해, 포교방법론, 비교종교론	주명철교수(동방대학원대학), 정연스님(승가대), 법상스님(승가대) 종석스님(승가대), 보각스님(승가대), 최홍석교수(금강대), 김호규교수(동국대) 윤영수교수(동국대),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 모집인원

▶ 토요반: 매주 토요일 오후6시 (80명), 목요반: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50명), 통신반 (50명)

3. 입학일시: 불교학과 2010년 8월 7일 오후 5시(동산불교대학) 입학식 및 개강

4. 모집일정 및 제출서류

- ▶ 원서교부 및 접수: 2010년 7월1일부터 접수중
- ▶ 제출서류: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영합판사진 3매

불교관련학과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한문학과 (2년과정/정규반, 통신반 30명)	초발심자경론, 한문해석 금강경(1),(2), 유마경(1), 중국고전(장제) 등	심만춘교수	9월 9일(매주-목) 오후7시
불교다도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T-테이블렛, 한국, 중국, 일본, 유럽 차문화사 제다학(1),(2) 한국의 한다	오양기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2시
불교미술학과 (3년과정/정규반 20명)	불화기법, 사물, 단청,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 등	법인스님	9월 9일(매주-목) 오전10시30분
사찰음식문화학과 (1년과정/정규반 20명)	사찰음식법, 여름, 가을, 겨울	정산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2시

불교대학원(법사과정)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불교학과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30명)	불교포교론	활안스님	9월 6일(매주-월) 오후7시
불교학과목요반 (3년과정, 정규, 통신 각 20명)	아함의 수행론	김형준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7시
다도학과(2년과정)	초기불교수준론(2)	최봉수교수	10월 7일(매주-목) 오후4시
	다경, 대관다론, 다부, 통다승, 다산전	김진숙교수	9월 7일(매주-화) 오후 4시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학과 및 과정	교과목	교수	개강 및 강의일시
한글의식반(1년과정 20명)	각종의식 이론, 실기	만춘스님, 문종순법사	9월 4일(매주-토) 오후2시
법배의식반 (2년과정 20명)	법배 실기	인각스님	9월 8일(매주-수) 오후3시

본회사사무처 <우>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 732-1206 FAX : 732-1207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연락주시면 학생모집 팸플릿을 발송하여 드립니다.



동산불교대학·대학원 학장 무진장 / 이사장 안동일